건강하려면 서서 일하라!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6일 화요일 제3129호 www.metroseoul.co.kr

DJ 이국주 '뜻정취자 포기'

경제계 신년인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세계최대 '가전쇼' 불꽃경쟁 시동

6일 美 라스베이거스서 개막…첨단 신무기 전시
삼성·LG전자, 이통3사 시장 선도 굳히기 총력전

중국발 가전·정보통신기술(ICT) 공습에 맞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 신무기로 맞선다.

CES는 세계를 여는 첫 가전전시회로 매년 그 해에 주목받는 서비스와 제품 등을 선보여 주목받는다. ICT 강국답게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CES에서의 주목도는 남다르다. 전통적으로 CES에서 대표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나 참관 목적으로 방문한 관객도 미국과 인근 지역 국가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대표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CES에 주목하고 있다. 이통 3사는 'CES 2015'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시대 시장 선도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전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K텔레콤은 CES 2015에서 비디오, 오디오, 건강(Wellness), 교육 등 3개분야에서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스마트빔 HD' ▲스마트 와이파이(WiFi) 오디오인 링키지 ▲공기오염도 측정기기인 '에어큐브' 등 총 7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SK텔레콤은 이처럼 스마트홈 시대를 주도할 제품 전시뿐 아니라 이형희 사업총괄 부사장은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이 행사에 참가해 글로벌 ICT기업 인사들과 교류하며 신규 비즈니스 사업 발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도 IoT 시대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상철 부회장이 직접 CES 2015에 참관한다.

이상철 부회장은 이번 CES에서 퀄컴, 인텔 등 해외 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 부스를 방문해 홈 IoT 관련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서비스 차별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또한 Z-Wave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IoT 기업들의 주요 임원을 차례로 만나 사업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부스를 방문, 스마트카의 기술동향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IoT 사업분야 주요 임원들과 CES 전시 부스 참관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올해 추진하는 IoT 신사업에 적극 접목, 홈IoT 시장 선도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KT는 황창규 회장 대신 서비스개발본부장 등 서비스 개발·디바이스 담당 임직원 4~5명이 CES에 참석한다. 이들은 현지 전시업체와 교류·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CES에서 이들은 빅데이터 기 그룹사의 서비스, 기술, 인력,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를 내 KT그룹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국민 기업이라는 특성을 KT만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IoT 시대 스마트홈 경쟁력 강화가 올해의 화두가 될 것 같다"면서 "이번 CES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살피고 고객 중심의 스마트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3명 중 1명 저녁 외식"

아침도 14%로 늘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저녁식사를 사먹는 것은 물론 아침에도 외식을 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주세영 교수팀은 1998~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5만5718명을 분석한 결과, 저녁식사를 밖에서 사먹는 비율이 1998년 20%에서 2012년 3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침식사 외식 비율도 1998년 7.3%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3.7%로 늘었다.

조사 결과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외식 횟수는 0.9회였으며 20대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30~40대가 1.1회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가장 외식을 적게 하는 연령대인 75세 이상(0.3회)에 비해 4배나 자주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셈이라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주 교수는 외식횟수 증가로 식생활 건강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외식을 통한 하루 열량 섭취량은 1998년 948㎉에서 2012년 1063㎉으로, 지방 섭취량은 21.6g에서 27.2g으로, 나트륨 섭취량은 2371㎎에서 2935㎎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은 1998년과 비교해 각각 26%, 24% 증가한 수치다.

/유주영기자 boa@

본사인사

△편집국장 강세준

인사혁신처 현판식 이근면(왼쪽 세번째) 인사혁신처 처장이 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현판식 및 시무식을 열고 직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한국영화에 바란다

기자 수첩

장병호 <연예스포츠부 기자>

2014년 한국영화는 3년 연속으로 1억 관객 시대를 이어갔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영화를 본 관객은 1억769만7299명이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러나 그 속을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처음 관객 1억명을 돌파한 한국영화는 당시 58.8%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59.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4년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50.1%로 급격히 하락했다. 반면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40% 초반대에 머물던 외국영화 점유율은 지난해 49.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한국영화가 1억 관객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1760만 관객 동원으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힘이 컸다. 그러나 '명량'을 제외하면 한국영화는 2014년 한 해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는 남자' '해적'의 흥행 실패는 많은 제작비와 스타 배우 캐스팅만으로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힘든 한 해를 보낸 한국영화는 2015년 새해를 모처럼 밝은 기운으로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누적 관객수 775만을 모으며 흥행 중이다. 독립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436만 관객을 넘어서며 선전하고 있다. 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된 대작과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독립영화가 동시에 흥행하는 모습이 올해 내내 이어지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2015년 한국영화는 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고루 사랑 받기를 바란다.

"美 대북제재, 남북관계 영향 예단 부적절"

정부는 5일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는 이미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힌대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섣불리 예단해 이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지연

● 여야는 5일 이번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위원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틀째 접촉을 이어갔지만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靑,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씨 임명

● 청와대는 5일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비서관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본사인사

△논설실장 조인호 △산업부장(부국장 대우) 김태균
△경제부장(부국장) 윤경용

정윤회 문건·미행설 허위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진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언시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한중 양국의 외교부 국장급 인사와 국방부 부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2차 외교·안보대화'를 개최, 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이상덕(왼쪽 두 번째)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쿵쉬안여우(孔鉉佑·오른쪽 두 번째)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측 차석대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이상덕 수석대표, 쿵쉬안여우 수석대표, 류쥔번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아주부국장(차석대표). /연합뉴스

방사청 팀장 현역군인 70→50%로

군피아 척결… 개청 이래 최대 물갈이 인사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방사청 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며 본부 내 팀장이 육·해·공군 방위사업의 실무를 책임진다.

방사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는 방산 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관리와 견제 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방사청 인사는 육·해·공군 사업 담당 현역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자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 소위 '군피아'로 인한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통영함 납품 비리로 논란이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 보직은 기존에는 해군 6명, 공무원 2명이 차지했으나 이번 인사로 해군 2명, 공무원 4명, 육·공군 2명으로 조정됐다.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해당 군 팀장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조현정기자

다리 길이만 6m짜리 오징어 5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한 상인이 몸통 길이 2m에 다리 길이 6m의 대형 오징어를 일반 오징어와 비교하고 있다. 이 대형 오징어는 20만원에 나왔다. /연합뉴스

"제2롯데 또 사고 나면 제재"

서울시 사용승인 취소 등 경고에 롯데 '안전관리본부' 설치

서울시는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자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5일 경고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룹 자원의 강력한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롯데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제2롯데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과 시민 불안감 확산 원인이 롯데 측의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가 강화해야 할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성·투명성·전문성 확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롯데가 안전관리 체계에 외부 전문가와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운영해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제2롯데에선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 인부 추락사, 캐주얼동 출입문 탈락 사고,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균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롯데 측이 즉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아 시민 불안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롯데가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 제한과 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제2롯데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할 기구로 그룹 직속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본부'를 꾸리고 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범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두손 모은 유족 팔짱 낀 사장 사조산업 김정수 대표이사(왼쪽 오른쪽)가 5일 오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오룡호의 선원 가족들이 농성 투쟁 중인 서울 서대문구 본사 앞에 나와 회사측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신 수색 재개와 책임 규명, 보상문제 협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듯한 발언과 무성의한 태도로 유족들의 질책을 받고 돌아갔다. /연합뉴스

최초 이직 발생 시점서 구조조정 신고해야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앞당겨진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부터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 하는 시점으로 신고일이 바뀐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서식 중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장주영기자 [illegible]

"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청계·대림상가 일대 정비

서울 중구는 지난달 건축위원회를 열어 낙후한 청계상가와 대림상가 일대를 개선하는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공구, 조명, 건축자재, 주방기구 상가들이 몰린 이곳은 1970년대 모습과 같은 정도로 건축물들이 낡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는 청계천변과 연계한 업무·숙박시설 개발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낡은 건축물도 다가 정비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5일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이 오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또 3분위는 337만5000원에서 360만원으로 22만5000원 늘고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증가),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7분위와 8분위는 작년과 같은 67만5000원이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유주영기자

美 원유 수출 완전 허용?

최근 확대 지침 발표로 '40년 빗장' 풀릴지 관심

미국이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40년간 유지해온 원유수출 금지 빗장이 완전히 풀릴까. 셰일유와 가스 개발로 산유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원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증류탑 처리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초경질유)에 한해서 해외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비정제 석유 수출 허용 이후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던 수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1975년 원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캐나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지난해 6월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했다. 수출 금지 해제와 관련된 첫 조치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업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원유 수출 금지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 셰일유와 가스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반면 환경운동가나 석유로 수익을 얻는 제조 업체, 정유 업체 등은 수출 금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특히 환경 운동가들은 셰일가스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메탄가스)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다.

유가도 고려해야 한다. FT는 미국산 원유가 대규모로 수출되면 국제 유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의 차가 좁혀지면서 저유가에 익숙해진 미국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미기자

최고가 참다랑어 드실래요? 일본 도쿄의 쓰키지 어시장 경매에서 5일(현지시간) 180.4kg짜리 아오모리산 구로마구로(참다랑어)를 최고가인 451만 엔(약 4150만원, 1kg 당 23만원)에 사들인 스시 업체 대표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동성결혼 비율 급증

metro France

전체 결혼 13% 차지

지난해 프랑스에서 행해진 동성결혼이 전체 결혼의 13%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2013년 5월 동성결혼법이 공포되면서 동성애자는 결혼할 권리를 얻었고 동성결혼은 파리에서, 특히 좌파적 성향이 강한 구(區)에서 많이 했다.

가장 높은 동성결혼 비율을 보인 곳은 마레 지구로 파리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의 32.2%를 차지했다. 반대로 파리의 16구는 6.2%의 수치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2013년 동성결혼법이 적용된 지 7개월 후 동성결혼 비율은 전체 결혼의 3%를 차지했다. 예전 수치와 비교할 때 현재의 동성결혼 비율은 놀랄 만큼 증가한 것이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Paris : en 2014, 13 % des mariages célébrés étaient gays

"오바마가 나를 브로라고 불러"

영국 총리, 친밀감 과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브로(Bro)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브로는 형제라는 뜻의 영어 단어 브라더(Brother)의 줄임말이다. 청년들이 친형제나 가까운 친구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쓴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영 정상 간 특별한 관계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말했다"며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나를 브로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캐머런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 도 함께 칠 정도로 친하다'며 2013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례식에서 두 사람이 '셀카'를 촬영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일본 경제 대박나게~"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의 올해 첫 거래일인 5일(현지시간) 전통 기모노 차림의 여성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개장을 축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도는 빼고 동해는 일본해로

CIA '월드 팩트북' 수정 논란 日 로비 작용한 듯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가 삭제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CIA는 최근 각종 정보를 수정해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월드 팩트북은 세계 주요 기관이 국가정보 인용 때 활용하는 자료다.

새 자료에 따르면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나온다. CIA는 그동안 "1954년 한국에 점령당한 리앙쿠르 암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일본편 지도에 모두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 왔다.

최근 리앙쿠르 표기가 빠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월드 팩트북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리앙쿠르 표기가 한국편 지도에서 빠진 것 같다"며 "CIA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CIA는 한국편과 일본편 지도에서 동해의 명칭을 이전과 같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조선미기자

470일 배낭여행·스킨스쿠버…작은 일에도 행복 느껴

'꿈의 프로젝트'
두 번째는 '고래상어와 교감'

사람이야기

■네트워크카메라 엑시스 임보경 지사장

"조그만 일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됐죠."

네트워크 카메라 솔루션 기업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임보경 지사장(40·사진)은 스킨스쿠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찾아가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임 지사장은 달랐다. 2003년 2월 스킨스쿠버를 처음 접한 그는 2009년 9년 동안 꿈 남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470일간 배낭 여행을 다니며 스킨스쿠버를 즐겼다. 직장인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다.

"6세 때 아동 과학 도서를 보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장기간 여행은 갑작스럽게 결정했어요. 어느 날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여행이었죠. 물론 남편과 6개월로 일정을 잡았지만 돌아올 때 계산해보니 470일이 됐더라구요."

그러나 오랜 시간 여행을 다니면서 그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 자신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나 행복함을 쉽게 찾지 못했던 그가 여행 후 작은 일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는 "조그만 일에 쉽게 감동하지 않았는데 여행 중 세계 1대 다이빙 포인트인 시밀란에서 석양을 보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후 물속에서 스스로 예파를 찾거나 조그만 물고기를 만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변만이 아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배낭여행이나 장기여행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좋아한다면 여행을 다녀와서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단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피하는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막고 싶어요."

네트워크카메라 엑시스코리아 임보경 지사장 /사진=손진영 기자 son@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스킨스쿠버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매년 2~3회 새로운 곳을 찾아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아이슬란드 다이빙'을 꼽았다. 그는 "빙하가 녹아내린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3도 정도인데 물이 정말 맑다. 만들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시야가 확보돼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인다"며 "유라시안 대륙과 북미대륙의 지각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지형의 아름다움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즐기면서 업무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 엑시스 지사장과 본사(스웨덴) 협력업체에도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즐기는 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는 "부사장님과 임시 다음날 북아시아에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스킨스쿠버와 스키를 취미로 즐긴다는 것을 알게됐다. 우연히 맞아 떨어졌지만 단시간에 굉장히 가까워 질 수 있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논의할게 있으면 저를 앞세운다"며 웃음지었다.

꿈 프로젝트 첫 번째로 '470일 여행'을 다녀온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 바로 스쿠버 다이버들의 로망인 고래상어를 만나는 것이다. 그는 "몰디브에서 고래상어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적도까지 내려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필리핀 오슬롭에서는 먹이를 주며 고래상어를 유도해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연히 만나서 교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엑시스는 1996년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출시한 영상 보안 카메라 전문업체다. 전세계 전체 감시 카메라 시장 1위 기업으로, 아날로그에서 네트워크로의 감시 카메라 시장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전세계 보안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정해균기자 yeahfine@ⓜseoul.co.kr

"1분1초 다투며 목표 100% 완수해야"

이웅열 코오롱 회장 '타이머 2015' 선언

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사진)은 5일 과천 코오롱타워 대강당에서 사장단과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통합 시무식을 가졌다.

이웅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치요한 실행을 강조하며 '타이머 2015'를 올해 경영지침으로 선언했다. 이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이머의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인다는 긴박감으로 철저하게 실행해나간다면 계획한 바를 100%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더스트리4.0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강조했다. 손자병법의 '병형상수(兵形象水, 흐르는 물처럼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를 인용해 "변화는 준비된 이에겐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남보다 반 박자 앞서가는 코오롱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임직원 개개인을 "코오롱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리더"라며 "나는 여러분과 성공의 길을 함께 가는 벗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그룹은 올해도 전 임직원들에게 경영지침을 담은 배지를 나눠주며 3년째 배지 경영을 이어갔다. 올해의 배지는 타이머 형상에 시간대별로 영어 'ACT'가 표기돼 단계적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철저한 실행의 의미를 담아 독수리 날개와 부엉이 눈도 새겼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 부엉이처럼 어둠 속에서 남들이 간과한 것까지 보자는 뜻이다.

'타이머 2015'로 명명된 배지는 격변하는 지금의 경영환경에서는 임직원의 잠재력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실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오롱 임직원이 경영지침 배지를 착용한 것은 2013년부터다. 2013년에는 개인의 성공이 모여 '성공퍼즐'을 완성한다는 의미의 성공퍼즐 배지를, 지난해에는 각자 마음을 더하고 열정을 곱해 시너지를 내고 서로 힘든 것을 나눠 무한대의 성공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더하고 곱하고 나누기' 배지를 달았다. /정시금기자 kcqei@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1915.75 (-10.59)	571.25 (+7.82)
금리	**환율**
2.12 (-0.02)	1110.70 (+6.20)

환율 800원대까지 떨어진다

올해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관계자가 엔화 지폐 뭉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창출·약자 배려에 앞장"

경제계 최대 행사 '신년인사회' 열려
박 대통령·상의 회장 등 1500여명 참석

"올해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다.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약자배려와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겠다."

경제계가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1월 첫째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며 국내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을미년을 맞아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경제계가 앞장서자"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창근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석현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엔저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최대기록을 이어가는 등 적지 않은 보람과 결실을 얻었다"며 "올해는 세계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우리경제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어 "경제부흥의 기치를 올린 선진국과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성장저해요인을 잘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찾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2015년 한해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인들도 전통제조업·ICT간 융복합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약자배려와 사회공헌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연봉' 보다 '평생 보장' 직장인이 원하는 회사

연봉이나 휴가보다는 평생 근무를 보장하는 회사를 원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74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회사조건에 대해 묻은 결과, '평생 근무를 약속하는 회사'라는 대답이 42.62%로 1위를 차지했다.

'눈치 안 보고 휴가 낼 수 있는 회사'(22.78%), '성과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회사'(15.19%), '바라는 만큼 연봉협상이 가능한 회사'(8.86%), '자기계발비용은 무조건 지원되는 회사'(8.44%) 등이 뒤를 이었다.

드라마 미생 캐릭터 중에서 원하는 상사로는 푸근함을 가진 김동식 대리(40.43%)가 1위에 꼽혔다. 미생 캐릭터 중에서 원하는 후배로는 '행복바이러스' 한석율을 선택한 직장인이 53.19%로 가장 많았다.

회사 내에 필요한 공간으로는 '점심시간 잠깐의 꿀잠으로 피로를 녹이는 수면실'(38.3%)이 1위에 올랐다. '커피를 입맛에 맞춰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27.66%), '남자만을 위한 휴게실'(14.04%), '참신한 아이디어가 팡팡 솟는 사내도서관'(11.91%), '육아맘을 위한 유아보육시설'(8.09%) 등이 뒤를 이었다.

/다국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XX) 동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24일 창간 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58

2000원대 외국산 담배 품귀 새해부터 투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 올랐지만 던힐과 메비우스 등 일부 외산 담배는 기존 가격 2000원대를 유지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편의점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뉴시스

우체국 알뜰폰, 10개 업체로 확대

판매상품도 18→30종으로 대폭 늘려

우체국알뜰폰이 6일부터 종전 6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늘려 다양한 상품 판매에 나선다. 판매상품도 18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추가로 선정된 4개 업체가 6일부터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추가되는 업체는 큰사람, 스마텔, 온세텔레콤, 위너스텔 등 4곳이다.

우체국알뜰폰 업체 확대와 함께 청소년 전용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청소년 전용 요금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특히 부모 동의가 있어야 충전되기 때문에 요금 과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자녀안심 서비스(키즈 케어)도 무료 제공해 자녀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유해매체도 차단된다.

위약금 없이 저렴한 무약정 반값 요금제도 1종에서 3종으로 확대되며, 기본제공 데이터량이 30MB~2GB로 다양해져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절감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상품은 늘었지만 업체마다 다른 가입신청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용량에 따른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 고객 불편도 최소화 됐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체국알뜰폰 판매업체가 10개로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알뜰폰은 가입편의를 위해 지난해 판매우체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현재 651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는 12월 말 기준 17만4000명에 달한다. 고객 1인당 월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이동통신 3사(3만5800원)보다 68.6% 저렴한 1만1250원으로 나타나 연간 가계통신비를 500억원 이상 절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기업 33% "채용 감소" 경력직 선호는 지속

올해도 취업시장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취업포털잡코리아는 기업 인사담당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4%가 신입사원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뽑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 규모가 줄 것이라는 인사담당자는 32.9%로 나타났다. 채용 규모가 늘어난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는 15.7%에 불과했다.

인사담당자 2명 가운데 1명꼴(51.4%)로 올해 경영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나빠진다는 응답은 32.9%였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경력 1~3년차를 원하는 인사담당자가 56.0%로 과반을 차지했다. 신입사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는 18.1%에 불과했다.

올해 취업시장 핵심 키워드로는 인사담당자의 27.3%가 직무적합성을 꼽았다. 삼성이 올 하반기부터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채용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기업 인사담당자도 바뀌는 채용방식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SNS를 활용한 소셜 채용(24.1%), 인성 중심 채용(24.1%), 비정규직 채용 증가(22.7%), 서류전형 폐지 등 스펙조월 채용(18.1%) 등을 언급한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김국원기자 kim.ce@

우수 금융신상품 '스탠바이 ELS'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신상품 '스탠바이 ELS'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4년 우수 금융신상품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발행 후 1개월 동안 연 2.9% 수익을 받으면서 기초자산의 주가를 관측하다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최초기준가와 상환조건이 설정되는 방식이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은행들, 예금금리 속속 인하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기 영향

주요 은행들이 새해부터 예금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나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 2일부터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두드림통장'과 '두드림2U통장'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1.4%로 0.4%포인트 인하했다. 예치금 규모에 따라 최고 연 1.3%를 적용하는 '두드림목돈통장'과 조건에 따라 최고 연 1.45%를 적용하는 '123저축예금'도 각각 금리가 0.3%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SC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2.05%에서 1.90%로, 주택청약부금(3년 만기)의 금리를 연 3.5%에서 3.4%로 각각 낮춘 바 있다.

SC은행 측은 "지난해 10월 전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예금금리 인하를 최대한 지연했다"면서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상품의 금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약부금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낮췄고, '퍼스트정기예금'은 기본금리는 변경되지만 우대금리 이벤트로 혜택을 제공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은행들은 지난 연말부터 일부 예금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1일 '국민수퍼정기예금(만기이자지급식)'의 3년 만기 기본금리를 연 2.40%에서 연 2.30%로 0.1%포인트 낮췄다.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를 0.1%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0일부터 대표적 브랜드 통장인 '신한S20통장'의 우대이율을 최고 연 2.50%에서 연 2.25%로 인하했다. '신한미래설계통장'도 우대이율을 최고 연 2.50%에서 최고 연 2.25%로 낮췄다.

은행들은 당분간 다른 상품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다르다. 한은이 올해 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연 2.0%인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가면 시장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예금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전문보험사 설립요건 완화

금융당국, 3월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근 10년 이상 신규 인가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생명·연금, 화재·자동차·상해·질병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 판매 시 인가가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보나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 질병(100억원), 도난(50억원), 배상보험(50억원) 등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여행자·자전거·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 인가 단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보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정 보험 판매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이 내용을 포함한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2015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5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앞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문호 위원장,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김기준 의원 /연합뉴스

新복합할부 상품 나오나?

카드업계, 이달 중 출시 車업계 반발

현대자동차와의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카드업계가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롯데, 신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구조의 '신(新) 복합할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카드사가 관련 구입대금을 결제 이틀 뒤 현대차에 지급하고, 30일 뒤에 할부금융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카드사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대출시점이 통상적인 카드대금 결제일인 1개월 후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은 커지지만 고객 입장에서 대출발생 시점이 다소 늦춰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합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캐피털사의 할부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로,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대금을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갚는 형태다.

기존 복합할부 상품은 고객이 현대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틀 뒤 카드사가 대금을 현대차에 선지급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흘째 되는 날 고객 명의로 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의 대출을 일으켜 돈을 돌려받았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신용공여나 대손관련 비용 없이 1.9%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카드사의 이익배분(1.9% 중 0.53%)을 감안해 수수료를 0.6%포인트 이상 낮춘 1.3%로 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에 KB국민카드는 1.85%이던 수수료율을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C카드와는 협상이 결렬돼 카드복합할부금융 신규 취급만 중단하고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지속키로 했다.

한편 새로운 복합할부 상품 출시 예고에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상품설계가 끝나는 대로 할부금융사와 세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차와 가맹점 관련 계약 종료를 앞둔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 각각 2월과 3월이 만료 시점이다.

/박아란기자

ING오렌지타워' 입주 ING생명이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ING오렌지타워 1구 일원빌딩'의 입주 기념식을 열었다. 정문국(가운데) ING생명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영업 본부장들이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ING생명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 사고판다

거래소, 12일 개설 "초기 관망시기 지나… 내년 2분기 활성화" 예상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개설된다. 시장 운영을 맡은 한국거래소는 초기 거래는 기업들의 관망세 속에 부진하겠지만 내년 2분기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에서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2015년 배출량 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상무는 "일단 연간 배출권 사용 실태를 개별 업체들이 정확히 파악한 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기업들은 남는 배출권 물량이 남으면 다음해로 이월하고 부족하면 다음해 물량을 앞당겨 빌려올 수 있는 유연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수요국들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38개국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이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지역 단위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금융기관 3곳과 정부로부터 오는 2017년까지 3개년치 배출권 물량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한다.

투자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조성되면서 금융투자회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

시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인 착으로 각종 파생상품이 쏟아져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권 선물도 상장하면 현·선물 연계거래를 통해 적정 균형가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장은 참여자가 한정돼 기반이 취약하므로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번 시장 개설로 선물시장 개설과 탄소상품 지수 개발 등 배출권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거래소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성격이 비슷한 외부감축실적,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등 다양한 관련 상품도 상장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직접 배출은 물론, 간접 배출까지 포함돼 산업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국내 전력요금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며 "법령 제정 당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거래제 도입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탄소 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기회라고 반박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쉽다 편하다 빠르다
KB뱅크월렛통장

KB뱅크월렛통장' 판매 KB국민은행이 5일부터 뱅크월렛(모바일 지갑)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상품 'KB뱅크월렛통장' 판매에 들어갔다. 이 통장은 뱅크월렛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점을 감안해 종이통장이 발행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개발됐다. /국민은행 제공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 출시

동부화재는 5일 세월호 사고, 개인정보유출 등 연이은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부상 보상과 보이스와 메신저 피싱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대중교통·업무·레저활동 중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사고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 일당을 90일 한도로 하루에 1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 피싱 손해는 최대 100만원이 보장된다.

민사·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 변호사보수액은 최대 1500만원, 민자역과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해준다.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준다.

가입 조건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며, 기간은 5·10·15·20년, 25·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은행·증권 칸막이 없앴다"

농협금융, 국내 1호 복합점포 문열어

은행과 증권 영업점 간의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가 문을 열었다.

5일 NH농협금융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1호 복합점포인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를 서울 세종로 광화문빌딩 10층에 개점했다.

이는 금융규제개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제1호 복합점포로, 기존 점포와 달리 은행과 증권 영업점간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도 한 장소에서 은행·증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 양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협금융은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에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을 공동으로 입점시켜 고액 자산가와 법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증권의 종합금융자산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은행·증권 통합계좌개설과 공동 우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복합점포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개방형 창구와 공동 상담실 등 복합점포 전반 운영사항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복합점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금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는 금융규제개혁에 발맞춰 농협금융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미래창조금융의 첫 성과"라며 "신복합점포와 대표투자상품, 범농협카드를 주축으로 시너지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농협금융의 수익성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를 시작으로 여의도 NH농협금융PLUS+센터 등 최대 10여 곳의 복합점포를 올해 중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에 신설할 계획이다. /채아람기자 achyo0303@

신한투자, '2015 시작이 복이다!'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새출발 기념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푸짐한 경품을 주는 '시작이 복이다!' 이벤트를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는 올해 증시를 이끌 주력 업종을 선택한 참가자 가운데 총 651명을 추첨해 한화 트레스 이용권과 CGV 영화예매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 기간 지음 계좌를 개설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은 1년간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다른 'ELS·DLS & 펀드 가입 이벤트'는 ELS나 DLS, 펀드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상품 개수에 따라 1개는 백화점 5000원 상품권을, 2개 이상은 1만원 상품권을 모두에게 지급한다.

생애 첫 금융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이와 별도로 5만원 상품권을 추첨해 제공한다.

가입 상품이 2개 이상이면서 가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라호텔 1박 이용권, CJ 상품권 20만원권, 스타벅스 이용권 10만원권 등 푸짐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김현정기자

'변화' '혁신' 외치며 중공업계 힘찬 발진

두산重, 카자흐스탄 발전소 계약 · 현대重, 경쟁력 강화 강조

국내 중공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힘찬 시작을 알렸다.

두산중공업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발주처인 KUS(Karabatan Utility Solutions)와 3400억원 규모의 310MW급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 계약을 체결했다. 카라바탄 발전소는 카스피해 북쪽 아티라우 주 경제특구에 건설된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감리, 시운전에 이르는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m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아티라우 주 경제 특구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 카라바탄 복합화력 발전소는 이 곳 화학단지에 사용되는 전기와 증기를 공급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1조8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융이손 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카자흐스탄 발전소까지 수주하며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의 결실을 보고 있다"며 "중앙아시아는 2020년까지 23G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수주가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일 올해 첫 선박 인도식을 가졌다. 쿠웨이트 UASC사로부터 수주한 1만5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길이 368m, 폭 51m, 깊이 30m의 축구장 3개 규모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첫 선박 인도를 시작으로 올해 매출 4조6000억원 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5일 시무식을 열고 2015년 을미년을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15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AL MURAYKHA'호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올해 매출 목표를 24조 3259억원으로 잡고 ▲원가경쟁력 강화 ▲현장 안전 ▲역동적 조직 문화 개편 등을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jinkim@metroseoul.co.kr

잡스·게이츠·김택진 공통점은?

IT업계 양띠 CEO

빌 게이츠(MS), 스티브 잡스(애플) 그리고 김택진(엔씨소프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내외 내로라하는 IT기업 CEO인 이들은 국적은 달라도 양띠 동갑내기다.

을미년 양의 해를 맞아 양띠 C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의 부드러우면서 때로는 이미지는 치열한 소프트웨어 업계를 닮았다. 서양에서도 양띠 마케팅이 거센 가운데 을미년 기대주로 꼽힌 띠 동갑내기 IT기업 CEO들을 살펴본다.

굴지의 게임기업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와 넥슨지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1967년생 양띠다. 두 사람은 온라인게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리니지' 열풍을 일으킨 게임 벤처 1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대적인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택진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년만에 공식석상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모바일 중심 사업 포부를 밝히며 '리니지 이터널'의 모바일 버전을 현장에서 시연하기도 했다. 송재경 대표는 세계 4대 문명을 소재로 한 '문명 온라인'으로 올해 게임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이 게임은 최근 진행한 2차 비공개 테스트(CBT)에 참가자 5만명을 기록하며 순항하는 중이다.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 파스타'로 유명한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1979년생이다. 30대 젊은 CEO이지만 카카오가 선정하는 올해의 게임에 2년 연속 우수 개발사로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증했다. 이밖에 인터넷 방송을 부흥시킨 아프리카TV의 서수길 대표도 1967년생으로 양띠 IT CEO 명단에 들었다.

해외 IT업계에서도 양띠 CEO 활약이 눈부시다.

빌 게이츠 MS 창업주와 사티아 나델라 신임 MS CEO는 각각 1955년생, 1967년생으로 띠동갑 CEO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기업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가상 정보처리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를 본격화한 스티브 잡스 애플 CEO도 1955년생 양띠다.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더 이상의 혁신은 이루울 것 아란 부정적 여론에 휩싸였지만 아이폰6 성공으로 잡스의 공백을 이겨내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1955년생이다. 슈미츠 회장은 사업차 우리나라를 수차례 방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까지 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신양시계 눈길 끄네. 현대백화점이 을미년을 맞아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브레몬 콘스탄틴의 차이니즈 조디악 시리즈 '신양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 웹툰, 모바일 게임으로 만난다

수익 극대화 박차

네이버 인기 웹툰을 모바일 게임으로도 즐기게 된다.

네이버는 웹툰 활성화와 창작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첫 도입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에서 한달에 7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작가가 등장할 정도로 PPS 프로그램은 웹툰계의 대표적 수익 모델로 떠올랐다.

올해 네이버는 웹툰 캐릭터 상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웹툰 기반 게임 활성화 등으로 PPS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웹툰 캐릭터 상품의 기획부터 디자인·제작까지 총괄하는 '웹툰 스튜디오'를 내부에 두고 웹툰 캐릭터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웹툰 캐릭터 온라인 스토어를 정식 선보인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1층에 위치한 브랜드 스토어의 모습. 170여 종의 네이버 인기 웹툰 캐릭터가 판매되고 있다. /네이버

웹툰을 게임으로도 만나게 된다. 현재 네이버 웹툰 '신의탑'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어 '노블레스'와 '갓오브하이스쿨', '소녀더와일즈'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개된다.

이밖에 웹툰 소재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도 지원된다. 웹툰에 대한 2차 창작 문의가 늘어나면서 네이버는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 파트를 구성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셀장은 "게임의 경우 네이버 웹툰 서비스에서 웹툰 원작의 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게임들이 유저들에게 보다 잘 알려지고, 창작자의 수익도 높아지는 윈윈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1월 8일 2시
4차 티켓오픈!

류정한
조승우
박은태
조강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Now Playing!

'초경량' 노트북 쏟아져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효율·성능 향상

PC업체들이 최근 휴대성을 강화한 초경량 노트북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이동 중에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무게를 줄이면서도 배터리와 성능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1kg이 채 되지 않는 초경량·초박형 노트북 9 2015 에디션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두께 11.8㎜, 무게 950g으로 삼성전자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볍다. 이를 위해 외부 케이스의 형태를 이음새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깎아 제작하는 싱글 쉘 바디 공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 제품 대비 화면 크기를 13.3인치에서 12.2인치로 줄여 휴대성을 강화하면서도 화면 비율을 16:10으로 동일하게 제작해 사용성도 유지했다. 배터리 효율이 향상돼 최대 12시간 30분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울트라 파워 세이빙 모드'를 적용해 배터리 잔량 10% 상황에서 사용 시간을 최대 1시간 가량 늘렸다.

LG전자는 화면과 키보드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 컨버터블 PC '탭북 듀오'를 지난달 출시했다. 이 제품은 키보드를 제외한 본체 무게가 530g으로 생수 한 병 무게와 비슷하고 키보드를 결합해도 792g에 불과하다. 제품에 배터리는 최대 11시간까지 가능하다. 제품의 키보드는 멀티 페어링이 지원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탭북 본체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3개까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레노버는 5일 세계 최경량 14인치 울트라북인 '씽크패드 X1 카본'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14인치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풀HD 디스플레이와 표준 SSD보다 80% 빠른 저장 성능을 제공하는 PCIe SSD 등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더욱 길어졌으며 카본 섀시로 내구성을 강화한 동시에 무게를 1.27kg으로 줄였다.

/정혜인기자 hjune04@

SM5 택시 비중 40%로 높이겠다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 출사표… 2016년 내수 3위 목표

"한 대다로 권토중래(捲土重來)다."

박동훈 르노삼성차 영업담당 부사장은 5일 SM5 노바를 선보이는 소감을 간단하게 이 4자성어로 요약해 소개했다. 박 부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중형차시장에서 밀렸던 SM5가 SM5 노바를 통해 새롭게 재도약을 노리기 때문이다.

박 부사장은 "SM5가 르노삼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LPG 시장에서 밀린 탓"이라며 "LPG 시장은 특화된 영업조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여러 문제로 그 부분이 미흡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솔린 모델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SM5 노바는 연간 3만대 판매 이상을 노리고 있다. 그 가운데 LPG 모델이 40% 이상 될 것이며 다른 택시는 잔출 여건이 마련된다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택시 고객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라인'을 설치해 빠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왼쪽)과 박동훈 사장(오른쪽)이 SM5 노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학수(이효) 기자

박 부사장은 "2016년 내수 3위를 위해 제품뿐 아니라 판매망, 조직 회망할 것이 많다"며 "판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영업력을 강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며, 판매와 정비를 함께하는 딜러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furrie@metroseoul.co.kr

한국지엠 '2015 해피 뉴이어 페스티벌' 한국지엠은 1월 한 달간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보험료 지원, 유류비 지원, 스피커와 아이패드 에어 등을 증정하는 '2015 해피 뉴이어 페스티벌'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지엠 제공

삼성그룹 디지털 사내외보 '삼성앤유 프리미엄' 탄생

2009년 처음 발행돼 19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삼성그룹의 사내외보 '삼성앤유'가 5일 '삼성앤유 프리미엄'이란 이름의 디지털 사내외보로 새롭게 탄생했다.

삼성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www.samsungandyou.com)와 구독자 대상 e-메일 서비스를 통해 독자 누구나 손쉽게 '삼성앤유 프리미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발행 주기도 기존 격월에서 월 2회(첫째, 셋째 월요일)로 변경해 더욱 자주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삼성의 사내외보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삼성앤유'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성 관련 콘텐츠 외에도 사회의 화두, 대중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골고루 다루므로써 삼성과 사회의 소통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월 2회 발행분 중 첫째 주는 '삼성'을 테마로 관련 콘텐츠를, 셋째 주는 '앤유(& you)'란 테마로 사회 화두나 트렌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한 LH에 과징금 146억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혐의로 두 공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H에 대해 146억4000만원, 수자원공사 10억2600만원 등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LH는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금액을 23억1300만원 감액했다.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맡은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두탁기자 kim@

전문가 5인, "위례·동탄2 등 주목하라"

부동산시장 회복세 속 분양·수익상품 유망
전월세난은 계속 … 민간임대업자 활용해야

새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개편, 공공택지 공급 중단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한 결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이 올해의 키워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주택보다는 신규분양주택이, 주택보다는 상가·오피스텔 등의 수익형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15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 잠재력은 있으나 내내외 경제불안으로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그동안 공급됐던 아파트의 입주가 현실화되며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팀장도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고용불안,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심리 등의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는 약보합세로 예상된다"며 "재건축은 부동산3법 통과로 숨통이 트이겠지만 추가분담금에 따라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분양, 특히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새 아파트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주목해야 할 상품으로 전문가 모두의 선택을 받았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1순위자 증가, 향후 3년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의 호재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체 투자상품의 부재와 청약시장 참여자 완화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쉬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도 위례·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와 지방 세종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분양시장과 함께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호황도 공통적으로 예측됐다. 경기 활성화 정도를 지켜봐야겠지만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수익형상품으로 대거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따라 매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상품의 선호도가 높다"며 "투자금액에 따라 상가, 소형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빌딩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월세시장은 새해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전환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데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도 예정돼 있어서다.

이에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확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엄채우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민간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거나 임대소득세율을 주택수에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월세시대를 연착륙하기 위해 월세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월세통계 선진화 등의 방안이 꼽혔다.

양해근 팀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준금리의 4배수 이내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4배수를 3배수로 낮춘다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a0202@metroseoul.co.kr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양해근 삼성증권 팀장, 김연화 기업은행 팀장,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엄채우 국민은행 팀장(왼쪽부터)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 지방 앞질러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처음으로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전세가율은 6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은 62.0%에 그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질렀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1.8%, 지방은 61.9%로 지방이 근소하게 더 높았으나 12월 들어 순위가 역전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통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전세가율이 높다"며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집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더 커지고,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전세가율은 전국이 70.0%, 서울이 65.7%로 역시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달보다 0.4%포인트,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화성으로 78.1%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평균 전세가율도 전달보다 0.6%포인트 오르며 67.6%를 기록,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성북구(73.0%)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71.8%), 동대문구(70.3%), 관악구(70.3%), 동작구(70.1%)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나타내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지난달 101.4로 전달의 104.1보다 더 낮아졌다. 이 지수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내다본 3개월 후 주택 가격 동향으로, 100을 초과하면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9월 120.6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석달째 연이어 하락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리모델링 장충체육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17일 개관한다. /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작년 해외보증 4308억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보증 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78% 증가한 4308억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이 1998년 해외건설보증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건공의 외국 발주처에 대한 보증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3528억원, 중견·중소기업 보증은 19% 증가한 725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공은 작년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UAE·인도네시아에 해외 사무실을 개소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보증을 지원했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2015년은 해외건설 진출 50주년,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 돌파 등 해외건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로,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금융제공에 건공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공의 해외은행 직접보증 확대와 동남아 주요은행과의 MOU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보증이 필요한 지역에 건공의 지역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두탁기자

버스킹·쇼핑…스토리 입힌 기부 뜬다

공연으로 장애 아동 후원·한정판 상품 출시 지원 등 눈길

패션업계가 독특한 기부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렌디한 업계 특성상 버스킹 공연·쇼핑 등 스토리를 입힌 기부로 '퍼스트 펭귄(시장 선도형)' 브랜드가 되겠다고 나선 것. 기부금 전달과 같은 단순한 형식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부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

슈즈 멀티스토어 슈마커는 최근 걸그룹 씨엘씨(CLC)와 버스킹 공연을 통해 발달장애 아이들을 후원했다.

매주 일요일 홍대 놀이터에서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을 펼치고 있는 씨엘씨는 공연 수익금으로 서울시립병원의 발달장애 아동을 돕고 있는 '기부돌'이다. 슈마커는 이들의 좋은 취지에 동참, 서울시립병원에 신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발달장애 아동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오케스트라의 서울시청 공연의 후원자로도 참여했다. CLC 역시 감사의 의미로 슈마커의 기부 신발을 신고 축하 공연을 벌였다.

즐거운 쇼핑이 자연스럽게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CJ오쇼핑은 롯데영플라자 명동점 1층에 팝업스토어 '퍼스트룩'을 운영했다. 매장에서는 박승건·계범석·고태용 등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물론 CJ오쇼핑이 개발에 참여한 셀렙샵 신상품을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이 밖에 특집 기부방송 '착한 소비 캐디링 나눔'을 진행해 고객 주문 1건마다 1000원의 기부금을 조성한 바 있다.

마르니는 아이들이 꿈꾸는 세계라는 콘셉트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의 유년시절을 기념하고 상상의 자유를 키우기 위해 매해 벌이는 것으로 피날레에밀리아·나이로비·도쿄 등지의 아이들이 나만의 세상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크리스마스 한정판 티셔츠와 브로치에 담았으며 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교육 장려·창의력 탐구에 힘쓰는 학교와 단체에 기부된다.

아동복 브랜드 리미니어슈라가 선보인 리미니러브 스웨트 셔츠는 수익금의 일부가 SOS어린이 마을에 유기된 SOS베이비에게 전달된다. 이 티셔츠는 국내 론칭을 기념해 배우 변정수와 딸 유정원양이 협업해 만든 것으로 리미니어슈라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리미니어슈라는 미란다커·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스타의 자녀들이 입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아동복 브랜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슈마커 CLC 버스킹 기부 /슈마커 제공

새내기 초등생 잡아라 – 신학기 책가방 출시 제일모직 빈폴키즈가 5일 경기 빈폴 플래그십스토어에서 2015년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을 위해 새로 출시한 신학기 책가방 36종을 선보이고 있다. 빈폴키즈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동시에 편안한 착용감, 경량화된 무게, 내구성 등 기능적 측면을 강화했다. /제일모직 제공

'12조원' 홈퍼니싱 잡아라

인테리어 소품매장 눈독

주방·거실·침실 등 집안 공간을 꾸미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홈퍼니싱 시장이 급부상 중이다. 이에 부피가 큰 가구 비중이 높았던 가구 업계를 비롯해 SPA 패션 기업까지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구 업계는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대형화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는 한편 특정 상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사의 지척에 매장을 여는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가구 업계는 넓은 입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서울 서북권(파주·운정신도시·마곡지구 등)에 초대형 매장을 열고 있다. 지난해 말 이케아가 광명에 4층 규모의 매장을 연 데 이어 근접한 거리에 매장을 열고 정면승부에 나선 것이다. 또 가구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 매장에서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 성향에 따라 기존 매장의 규모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체리쉬는 서울에서 고양시로 이어지는 초입 1500평 규모의 본사 매장 두개 동에 공간 별 쇼룸을 제시하고 있다.

한샘은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인접한 목동에 지상 6층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매장이 들어선 곳은 이케아 광명점과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거리에 위치했다.

1·2층은 생활용품으로, 4층은 수입 가구 브랜드로 채워 프리미엄 매장을 구성해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현대리바트는 용산 아이파크몰의 7층 전체를 매장으로 쓰고 있다. 업계 측은 용산역 KTX를 이용하는 광역 상권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 1550평 규모의 리바트스타일샵은 한샘 플래그샵 목동점에서 차로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 홈리빙 인테리어 관련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토탈인테리어샵'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케아가 광명에 매장을 열면서 서울 서북권을 중심으로 가구에서 소품까지 논스톱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새해 초 男은 집단장, 女는 몸단장"

남성 인테리어·가구, 여성 화장품 구매↑

새해를 맞아 남성은 인테리어나 가구와 같이 집단장 관련 상품을 주로 구매한 반면 여성은 화장품·헤어용품 등 몸단장 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G마켓에 따르면 새해 첫날 남성 고객이 구매한 품목 중 조명·인테리어 관련 품목이 지난해 보다 15% 증가했다. 가구와 집단장을 위한 DIY 관련 품목도 15%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조명·인테리어 관련 품목 구매량은 3%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남성 고객의 소비와 대비됐다.

남성 고객은 비용 부담 없이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식 소품 구매량이 4배 이상(377%) 신장했다. 바닥재 관련 제품도 2배(116%) 늘었으며 현관이나 창틀 등 칠이 벗겨진 곳을 보완할 수 있는 페인트도 124% 판매가 증가했다. 가구 중에서는 일반 수납장(171%)과 책상(62%)의 구매량이 뛰었다.

한편 여성 고객은 보디용품이나 화장품 등에 소비가 집중됐다.

보디·헤어용품의 여성 구매량이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가운데 트리트먼트(326%), 립 케어(124%) 등의 품목이 많이 판매됐다.

화장품의 전체 판매량도 지난해 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브랜드숍 브랜드(180%)의 증가폭이 컸다.

남성의 경우 화장품(PB)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했으며 보디·헤어 관련 제품은 오히려 소폭 감소(-16%)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남녀 베스트셀러 제품에도 이 같은 경향이 반영됐다.

남성 고객의 경우 새해 첫날 구매한 제품 중 전구 형광등(3위), 문풍지·단열재(5위) 등 집단장 관련 제품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반면 여성 고객의 경우 트리트먼트(1위)가 가장 많이 팔렸고, 스킨·로션도 많이 구매한 품목 4위에 올랐다.

/김수정기자

눈 건강은 검진부터…

정기 검진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검진'이 필수다. 이에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안질환과 검진을 소개한다.

먼저 생후 3~6~9개월 즈음에는 선천성 안 질환 검사를 포함한 시력검사를 해야 한다. 또 시력이 어른 수준에 도달하는 만 6~7세까지는 사시와 근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정용 자가 그림 시력표를 이용해 부모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7살 이후에는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시력검사를 해야 한다. 고도근시 등 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차적인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안압 측정과 망막검사 등도 해야 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시력이 나빠지거나 콘택트렌즈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각종 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시력교정술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안과적 검진과 의료진과의 상세한 상담 후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이상도 1년에 1회 이상 안과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 안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긴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해야 하며 당뇨병이 생겨도 즉시 안과에서 망막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60세 이상의 노년기라면 3대 실명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으로 갑자기 눈이 나빠지거나 한 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쓰던 안경이 맞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오섭 글로리서울안과 대표원장은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검진을 해야 한다. 특히 40대부터 노년기까지는 시력검사와 함께 녹내장과 백내장 등의 안 질환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방광염' 반드시 치료해야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교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겨울이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방광염 환자가 늘어난다. 특히 전체 환자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치료를 꺼려한다. 하지만 방광염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에 이동현(사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에게서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방광염은 방광이 세균에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흔히 방광에 걸리는 '감기'로 불린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은 항문과 요도가 가깝고 요도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감염 외에도 성행위로 인한 요도의 기계적인 손상이나 폐경 후 여성호르몬이 감소돼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꽉 끼는 바지를 지속적으로 착용해도 방광염에 걸릴 수 있다.

아울러 ▲배뇨감이 자주 들어 화장실을 찾지만 정작 소변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배뇨 시 통증이 있는 경우 ▲혈뇨 또는 소변 색이 진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느껴지는 경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광염은 자연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에 기능적 손상이 일어나 만성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때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건강하려면 서서 일하라!

'스탠딩 워크' 유행… 산책이나 일어나 전화받기 몸에 좋아

최근 서서 일하는 '스탠딩 워크(Standing Work)'가 유행이다. 아직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 1시간 서서 일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사실 앉는 자세는 몸 하중을 대부분 허리 쪽으로 집중시켜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중이 1.5~2배 크며 오래 앉아 있으면 S자인 척추가 일직선으로 변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또 의자 끝에 걸치거나 등이 굽은 상태로 모니터를 보는 등 잘못된 앉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1시간 정도 서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척추에 오는 하중이 감소해 디스크 등 척추관절 위험이 줄어들고 골반과 척추 기립근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 서서 일할 때는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무게 중심을 양발에 일정하게 두고 수시로 번갈아 가며 서야 한다. 게다가 앉을 때는 척추가 S자를 그릴 수 있도록 뒤로 기대고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는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서 있는 시간과 앉는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서 일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한 방법이다. 아울러 전화를 받을 때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걸어다니며 허리를 펴주는 것도 좋으며 평소 산책을 즐기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박영곡 연세바른병원 원장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들에게는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서 있는 자세를 통해 신체를 바로 잡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겨울 여드름 방한용품이 원인?

목도리 등 착용과 건조한 환경 영향 커

여드름은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여드름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겨울철 여드름의 원인은 목도리와 같은 방한용품이나 의복이다. 옷감에 의한 지속적인 피부자극이 여드름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추운 날씨에 목도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섬유가 습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게다가 얼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목도리 등은 자주 세탁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피부 건조도 여드름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늘어나는데 각질이 제때 피부에서 떨어져나가지 못하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기를 이용하면 실내환경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나 미세먼지가 눈이나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선 피부 보습과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의복이나 각종 방한용품 등으로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시키며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빈제욱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만약 여드름이 생겼다면 피부에 손을 대는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가능하면 증상이 심해지기 전 피부과를 찾아 약물이나 레이저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진통제 제대로 알고 먹자

한국존슨앤드존슨, '올바른 복용법' 발표

청소년의 무분별한 진통제 복용이 늘고 있다. 이에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청소년이 기억해야 할 '올바른 진통제 복용법'을 최근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위장이 취약하다. 빈 속에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공복에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 또 진통제 복용 전 반드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연령이라도 몸무게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 권량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종합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는 진통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두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통제가 생리주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진통제 복용은 이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생리통을 참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돼 생리 1~3일 전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미생'보다 더 기대되는 김대명의 2015년

"인기 많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 "연애? 결혼?…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나요?" 영화 '뷰티 인사이드' '내부자들' '판도라' 출연… 다양한 연기 변신

지난달 20일 종영한 tvN 드라마 '미생'은 작년 한해 '힐링' '공감' '직장인' 등의 키워드를 남기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매회 드라마 속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해 울고 웃었다. 특히 부하 직원과 상사의 갈등, 비정규 계약직의 애환, 직장 내 성차별,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을 사실적으로 풀어내며 직장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미생'이 낳은 최고의 스타를 한 명만 꼽으라면 김대명이 아닐까 싶다. 그가 연기한 극중 원인터내셔날 영업3팀 김동식 대리는 이 시대 모든 대리들의 '워너비'로 등극했다. 오상식 차장(이성민)에게는 충직한 후배, 신입사원 장그래(임시완)에게는 엄마 같은 선배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최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대명은 지독한 감기에 걸려 있었다. 이날 새벽 '미생'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는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담담히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게요. 감기가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전부터 이상하게 한 작품을 마치고 나면 항상 몸이 아파요. 촬영하면서 긴 시간 동안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몸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촬영 중에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웃음)"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감기 기운에 조금 힘이 없어 보인다는 것 빼고는 딱 김대리 그 목소리였다. 드라마 '미생' 김원석 PD는 김대명의 목소리를 "아기 같다"며 "목소리부터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칭찬한 바 있다. 김대명의 목소리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하정우를 협박하던 그 목소리이기도 하다.

김대명은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잔뼈를 키운 연기자다. 2006년 연극 '귀신의 집으로 오세요'로 데뷔한 그는 2012년 '가들의 전쟁'으로 첫 스크린 데뷔를 한다. 이후 '방황하는 칼날' '표적' '역린' 등 굵직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브라운관은 '미생'이 처음이다. 김대명을 선택한 김원석PD는 "무척 떨었다"는 그의 첫 촬영을 생생히 기억한 반면 김대명은 담담했다.

"연극-뮤지컬-영화를 하다가 드라마는 처음이었는데 매체만 바뀌었을 뿐 연기를 한다는 기본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형식이 바뀔 뿐이지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연기에 있어서 크게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처음이라 긴장은 당연했어요. 좀 더 완벽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아쉽죠."

'미생'의 성공은 디테일의 힘에 있다. 촘촘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김대명도 김동식 캐릭터를 위해 누구보다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생활감이 중요했다.

"현실의 작은 부분들… 말투나 행동, 습관 등 생활감에 주력한 것 같아요. 실제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 연기를 하다 보니 어설픔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대본에 다 있던 장면과 대사들입니다. 대리들이 모여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신은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모두 대본에 있었어요."

포털사이트에 김대명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 한 장이 있다. 김대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름하고 굵은 선이 특징인 얼굴이다. '미생'은 김대명의 외모만을 바꿔 놓았을까.

"살을 좀 불리기는 했어요. 만나는 작품에 따라 살을 불리고 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항상 준비돼 있고요. '미생'으로 인기가 많아졌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앞에 닥친 일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도 사적인 일정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특히 가족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김대명의 2015년은 더 바빠질 전망이다. 스크린을 통한 연기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주인공 우진 역의 한 인물로 등장한다.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정치부 기자 역을 소화한다. 이병헌·조승우·백윤식과 호흡할 예정이다. 또 2월부터는 영화 '판도라' 촬영에 본격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들 하나 하나 해 나가자는 성격이죠. '다음 작품 잘 마무리하자' 정도?(웃음) 연애요? 항상 마음은 준비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좋을텐데…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웃음)"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이승철과 탈북청년 42인의 하모니

남북평화통일송 '그날에' 제작 과정 다큐로 방송
독도지킴이 이어 전국 수백만 미생 위로곡 발표

가수 이승철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열린 KBS 신년특별기획 '이승철과 탈북청년 42인의 하모니-그날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가수 이승철에게 2015년은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승철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개월 동안 펼쳐 온 원 네이션 캠페인(이하 ON 캠페인)의 향후 계획과 신곡 '해낼 수 있다'와 관련된 새 프로젝트에 대해 밝혔다.

현재 이승철은 지난해 3월부터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With U)와 ON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독도를 방문해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했다. 이어 8월 27일에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65회 UN DPI-NGO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그날에'와 '홀로 아리랑'을 열창했다. 8월 29일에는 위드유와 함께 하버드대학교에서 자선공연을 열고 남북통일 메시지를 전했다.

'그날에'는 남북평화통일 염원곡이지만 지난해 11월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건으로 독도 지킴이 송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이승철은 일본 측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그날에' 음원과 악보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는 8·9일 방송예정인 KBS1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승철과 탈북청년 42인의 하모니-그날에'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승철은 [illegible] 가나게 통일에 대한 노래를 독도에서 부르자고 했을 때는 거절했다. 독도가 워낙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곳이라 부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뷔 30년차 가수로서 자기만족을 위해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팬과 국민을 위한 행동도 해야 할 때라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각으로 위드유와 함께한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었는데 중간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일본 입국 거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 일로 ON 캠페인이 널리 알려져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흔히들 소셜테이너라고 말하는데 거창한 게 아니다. 30년차 가수로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독도와 통일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철은 ON 캠페인을 남북이 통일하는 그 날까지 이어간다는 각오다. 최근에 그는 U2의 보노 등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그날에' 영어버전을 함께 부르자고 제안,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철은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수백만의 미생(未生)들을 노래로 위로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신곡 '해낼 수 있다'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미생 합창단'과 함께 노래할 계획이다.

'해낼 수 있다' 뮤직비디오에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생'의 영상이 쓰였다. 이승철은 "'미생 합창단'을 꾸려서 함께 '해낼 수 있다'를 부를 계획"이라며 [illegible]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창단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오는 25일 미생 합창단과 함께 '해낼 수 있다'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uan@metroseoul.co.kr

여성듀오 다비치 컴백

21일 미니 앨범 발매… 대중과 적극적인 소통 예고

여성 듀오 다비치(왼쪽 이해리 강민경·사진)가 오는 21일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지난해 이름 방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이후 6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다비치는 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자필 편지로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다비치는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음악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 좋은 노래 들려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팬클럽 창단도 준비 중이다. 2015년은 좀 더 친근한 다비치가 될 예정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 기대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비치의 소속사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다비치의 음악 세계를 존중하며 향후 활동 방향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앨범을 통해 좀 더 성숙하고,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다비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정규 1집 '아마란스(Amaranth)'로 데뷔한 다비치는 '미워도 사랑하니까' '시간아 멈춰라' '8282'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로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지민기자

윤건, 음악프로그램 진행자 됐다

KBS1 '윤건의 더 콘서트' 7일 오후 첫 방송
케이팝 아닌 클래식·재즈·뉴에이지 등 소개

가수 윤건(사진)이 KBS1 새 음악프로그램 '윤건의 더 콘서트'를 시작한다.

7일 오후 11시4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윤건의 더 콘서트'는 클래식·재즈·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연주회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이다. 케이팝 위주의 가요 프로그램이 넘쳐 나는 가운데 '윤건의 더 콘서트'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나간다는 각오다.

앞서 윤건은 KBS1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 '클래식, 캐롤을 만나다'에서 자연스런 진행 실력으로 MC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윤건은 본업인 가수는 물론 연기·예능·MC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 했다.

'윤건의 더 콘서트'의 첫 회 게스트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드뷔시의 '달빛', 차이콥스키의 '가을 노래', 슈만의 '아라베스크' 등 평소 손녀를 위해 연주하던 피아노 소품곡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김무열·윤승아 4월 결혼

3년 열애 결실… 예식은 비공개로

공개 열애 중인 배우 김무열·윤승아 커플이 오는 4월 4일 결혼한다.

김무열은 4일 자신의 팬 카페에서 윤승아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오늘은 배우가 아닌 한 남자로서 여러분께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2015년 4월 4일 제 사랑의 첫걸음을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키워온 사랑을 앞으로는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에 늘 감사하며 풍족하게 살겠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처음의 마음으로 고민과 열정을 잃지 않는 배우 김무열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공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3년 열애 끝에 부부가 된다.

결혼식 시간, 사회자, 축가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혼식은 서울 근교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김무열

공효진 방문에 대만 '들썩'

'괜찮아 사랑이야' 방영 기념…뜨거운 취재 열기

배우 공효진이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대만 진출을 기념해 대만을 방문했다.

지난 4일 공효진은 대만 방송사 비디오랜드의 초청을 받아 단독으로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했다.

공효진은 대만에 머무는 동안 '괜찮아 사랑이야' 관련 기자회견부터 인터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해당 방송사를 통해 이달 2일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빙버전과 자막버전으로 나뉘어 방영 중이다.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공효진은 어릴 적 트라우마로 관계기피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는 정신과 의사 지해수 역을 맡았다. 전작 '건빵선생과 별사탕' '고맙습니다' '파스타'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등 공효진이 등장한 드라마가 차례대로 대만에서 방영돼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에 도착한 공효진을 취재하기 위해 대만과 중국 언론 약 40개 매체가 현장에 모여들었다. 카메라로 클로뮈 촬영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공효진은 현재 연극 '리타'에서 강혜정과 함께 주인공 '리타'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BC 새 수목극 '킬미, 힐미'의 오민석, 황정음, 지성, 박서준, 김유리(왼쪽부터) MBC 제공

7개 인격으로 돌아온 지성

수목극 '킬미 힐미' 제작발표회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는 바다 사나이" 원맨쇼 우려… "출연진 모두 빛났으면"

배우 지성이 7개 인격으로 안방에 컴백한다.

5일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새 수목극 '킬미, 힐미' 제작발표회에서 지성은 "7개 인격이 명확히 구분되야 해 어렵다"며 "7개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소화한다기보다는 차도현이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인격이 분리됐는지 그 동기와 상처 치유를 중점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여기에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지성은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비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사라진 기억의 퍼즐을 찾아 헤맨다.

지성은 이날 가장 애착이 가는 인격으로 '페리박'을 언급했다. 페리박은 40대 내부조리자로서 입맞 바다 사나이다. 그는 "7개 캐릭터를 다 연기해보지는 못했다. 만나 본 캐릭터는 차도현, 신세기, 페리박"이라며 "그 중 페리박을 사랑한다. 시청자가 페리박에 웃고 울었으면 좋겠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지성의 원맨쇼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차도현을 치유할 정신과 의사 오리진 역의 황정음은 "작품이 잘 되려면 누구 하나의 힘 때문이 아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며 "주인공을 빛내줘야 하고 우리는 지성을 믿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서준은 오리진의 쌍둥이 오빠 오리온 역을 맡았다. 천재 추리소설가이며 비상한 두뇌를 지녔지만 행동은 바보스럽다.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인물이다. 그는 "차도현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오리온도 뒤지지 않는다. 시놉시스를 봤을 때 지금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성은 "드라마가 나의 원맨쇼가 된다면 단순한 작품에 그칠 것"이라며 "함께 하는 배우들이 빛나지 않으면 차도현이 살 수 없다. 박서준의 발랄함에서 나이의 한계를 느끼고 황정음과는 드라마 '비밀' 이후 재회한 거라 방향성이 명확하게 선다. 안심된다"고 전했다. '킬미, 힐미'는 오는 7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DJ' 이국주 "남자 청취자 일찍 포기"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써니와 함께 유인나 이기겠다"

방송인 이국주(사진)가 걸그룹 소녀시대 써니와 힘을 합쳤다.

이국주와 써니는 현재 SBS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에 함께 출연 중이다. 5일부터는 SBS와 MBC라디오 DJ로서 동시간대 경쟁을 한다.

5일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파워FM(107.7Mhz)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기자간담회에서 이국주는 "써니가 축하해줬다. 서로 나름대로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둘이 손을 잡고 KBS를 이기자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KBS 쿨FM에서는 DJ 유인나가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요'가 방송 중이다. 이에 이국주는 "유인나의 목소리가 정말 달달해서 남자 팬이 엄청 많다"며 "나는 일찍이 남성 청취자를 포기했다. 듣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좋은 언니로 시작해 좋고 신나는 누나로 자리잡고 싶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국주는 지난해 11월 6일 '케이윌의 영스트리트' 대타 DJ로 참약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는 "7년 전부터 라디오 DJ를 꿈꾸기 시작했다"며 "'두 시 만세'로 처음 고정 게스트가 됐다. 이후 일주일에 게스트를 5개까지 했다. 게스트를 해왔자 DJ로 시켜주지 않아 라고 말했던 선배도 있었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 번 소리를 질렀다"며 "'런닝맨'에 출연했을 때, '룸메이트' 고정이 됐을 때, 그리고 이번 '영스트리트' DJ 제의를 받았을 때"라고 애정을 보였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는 5일부터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오늘의 연애' 이승기·문채원 / '강남 1970' 김래원·이민호 / '허삼관' 하지원·하정우

코미디·로맨스·느와르 '골라보는 재미'

새해 첫 한국영화 '허삼관' '오늘의 연애' '강남 1970'

또 나시 밝아온 새해 한국영화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관객과 만난다. 가볍고 유쾌한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묵직한 액션 느와르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하정우·하지원의 '허삼관'과 이승기·문채원의 '오늘의 연애'가 개봉돼 흥행 대결을 펼친다.

'허삼관'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하정우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도맡은 작품이다. 주인공 허삼관이 절세미녀 허옥란을 아내로 맞이해 세 아들을 얻으면서 겪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그렸다.

하정우는 "허삼관이라는 캐릭터는 물론 드라마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영화화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는 1950~196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로 각색해 웃음과 감동이 녹아든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하정우와 하지원의 첫 만남, 그리고 전혜진·장광·주진모 성동일·이경영 김영애 정만식 조진웅 김기천 김성균 등 연기파 배우들의 가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늘의 연애'는 '너는 내 운명' '내 사랑 내 곁에' 등 멜로영화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박진표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썸' 타느라 사랑이 어려워진 오늘날의 남녀 이야기를 공감가고 유쾌하게 그린 로맨스 영화다.

박진표 감독은 "요즘의 연애는 진지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하기 이전인 '썸'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진짜 사랑과 연애를 하려면 깊이 부딪히고 깨져야 한다는 것을 영화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문채원이 18년째 친구로 밖에 될 수 없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주인공 준수와 현우를 연기했다.

오는 21일에는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인 '강남 1970'이 개봉한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이은 작품으로 강남땅의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두 청춘이 빚어내는 욕망과 배신의 드라마를 담았다.

이번 영화에서 이민호는 고아 출신 종대 역을 맡아 기존의 '꽃미남' 이미지를 벗고 180도 상반된 연기 변신에 도전했다. 거친 액션 연기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투혼을 발휘했다. 김래원은 종대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조직 2인자 자리에까지 오르는 용기 역으로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송혜교·오우삼 감독 '태평륜' 상륙

제작비 420억원 프로젝트… 3, 6월 나눠서 개봉

배우 송혜교와 오우삼 감독이 함께 한 대서사극 '태평륜'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오는 3월과 6월 국내에서 개봉한다.

'태평륜'은 혼란의 시기였던 1940년대 중국 본토와 대만을 오가던 조르와 여객선 태평륜호의 침몰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세 쌍의 커플을 중심으로 전쟁과 재난이라는 혼돈의 세월,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다룬 대서사극이다.

영화는 제작비 약 420억원에 제작기간만 4년이 걸린 중화권 최고의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았다. 오우삼 감독은 "믿음, 희망, 운명을 주제로 전쟁과 혁명이 있던 격동의 시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답게 출연진도 호화롭다. 한국의 송혜교를 비롯해 중국의 장쯔이, 금성무, 황효명, 일본의 나가사와 마사미 등 한중일 대표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영화는 지난달 2일 중국에서 먼저 개봉해 현재까지 2억 위안(한화 359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김수미 욕쟁이 할머니로 컴백

코미디 '헬머니' 3월 상영

배우 김수미가 영화 '헬머니'(감독 신한솔)로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헬머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욕의 고수를 뽑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욕의 맛'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특유의 카리스마로 종횡무진 활약해온 김수미는 '헬머니'에서 비밀스러운 과거를 간직한 욕쟁이 할머니로 코믹 연기를 펼쳤다. 맛깔스러운 욕 연기로 관심을 모은다.

또한 충무로를 대표하는 감초 조연 배우인 정만식, 김정태가 김수미의 극중 아들 승현과 주현 역을 맡아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이태란, 정애연이 각각 정만식, 김정태와 부부로 호흡을 맞췄으며 예능 대세로 떠오른 외국인 스타 샘 해밍턴, 샘 오취리 등도 함께 했다.

'헬머니'는 오는 3월 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이민기·여진구 동갑내기 된 사연

'내 심장을 쏴라' 캐스팅 비하인드 공개

배우 이민기, 여진구가 영화 '내 심장을 쏴라'(감독 문제용)에 동갑내기로 캐스팅된 사연이 공개됐다.

'내 심장을 쏴라'는 정신병원에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던 모범환자 수명(여진구)이 시한폭탄 같은 동갑내기 친구 승민(이민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7년의 밤' '28' 등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정유정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이민기와 여진구는 각각 다른 시기에 '내 심장을 쏴라'를 접했다. 하지만 촬영이 들어가기까지 절묘한 타이밍이 작용해 동갑내기 친구로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부터 실제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친 제작진은 주연 배우들에게도 각각 다른 시기에 캐스팅 제안을 했다.

이민기는 극중 승민과 같은 25세 즈음 원작 소설을 처음 접했다. 배우로서 고민이 많던 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몇 번이나 부딪히는 승민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민기는 그 무렵 승민 역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

반면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당시 너무 어렸던 여진구는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이후 수명 역에 도전하게 됐다.

문제용 감독은 "(배우들의) 실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배우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잘 소화할지에 중점을 두고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 심장을 쏴라'는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슈틸리케호 '톱11' 누가?

사우디와 평가전으로 주전 경쟁 윤곽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4일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구사할 전술과 선수 기용 방향을 내비쳤다. 공격진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빈번한 자리 이동을 강조하는 제로톱이 기본 전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꺼낸 전술 대형은 공격수 4명을 포진하는 4-2-3-1이었다. 전반전에는 센터포워드 이근호(엘 자이시), 좌우 날개 손흥민(레버쿠젠), 조영철(카타르SC), 그리고 처진 스트라이커로 구자철(마인츠)이 2선 공격진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 공격진 조합은 전반에는 이렇다 할 활약상을 나타내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에 이근호를 빼고 조영철을 최전방으로 올린 뒤 오른쪽 날개로 한교원(전북 현대)을 투입했다. 구자철도 남태희(레퀴야)와 교체됐다. 제로톱 전술의 가짜 공격수로 활동하던 조영철은 막판에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정협으로 교체됐고 이정협은 골을 터뜨렸다.

결국 슈틸리케호의 공격진에서는 손흥민, 이청용이 좌우 윙어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조영철, 이근호가 최전방을 놓고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정협은 이날 결승골로 원톱을 지닌 조커로 눈도장을 찍었다.

4일 오후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대비 최종평가전 한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연합뉴스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이미 예약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성용의 짝궁으로는 박주호(마인츠), 한국영(카타르SC), 이명주(알아인) 등이 거론된다.

수비라인은 오리무중이다. 왼쪽 풀백에 김진수(호펜하임), 박주호, 오른쪽 풀백에 차두리(FC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경쟁하고 있다.

센터백도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주영(FC서울)이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을 제치고 사우디전에 발탁됐지만 불안함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슈틸리케호는 출범 이후 5차례 평가전에서 단 한 차례도 수비라인이 같은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골키퍼 경쟁에서는 김진현, 김승규가 부상을 당한 정성룡에 한발 앞선 상황이다. 둘은 전·후반을 나눠뛰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김진현은 그 동안 세 차례 선발로 나선 만큼 김승규, 정성룡보다 우위에 서있다.

/정재호기자 sstan n@metroseoul.co.kr

스피드업은 투수에 달렸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2015시즌 프로야구 화두는 스피드업이다. 작년 1경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27분이었다. 타고투저 현상이 벌어지며 투수교체가 잦았고 공수교대, 투수교체, 타자등장까지 느슨했다. 오심을 막기 위해 비디오판독까지 도입했으니 경기시간이 늘어났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015시즌 스피드업 세칙을 내놓았다. 두드러진 것은 투수교체는 2분30초 이내, 타자는 BGM(배경음악)을 시작으로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 타격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잘 먹히면 평균 10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였다. 그래도 3시간 17분은 너무 길다.

경기시간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 일단 등판투수가 많다. 1경기당 등판투수는 2013년은 6.37명, 2014년은 8.57명이었다. 팀 당 4~5명은 매일 나온다는 말이다. 양팀의 투수교체 소요 시간을 적용하면 대략 25~30분 정도 걸린다.

아울러 투수들의 능력 부족도 있다. 경기를 빨리 끝내려면 투수와 타자가 모두 적극적이어야 한다. 투수는 초구부터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야 하고 타자가 방망이가 나올 수 있게끔 절묘한 유인구가 필요하다. 타자들도 비슷하면 방망이가 나오는 공격적 야구가 필요하다.

이른바 메이저리그식이다. 그러나 한국 투수와 타자들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투수는 처음부터 도망가는 피칭을 한다. 유인구를 던지더라도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자들이 속지 않는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나오지 않아 풀카운트 승부가 많고 그만큼 볼넷 확률도 높아진다.

투수들의 볼넷 남발과 볼을 많이 던지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다. 한국의 선발투수들은 에이스를 포함하더라도 제구력이 뛰어나지 않다.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6회 이후에는 불펜이 바빠진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투수교체가 잦아지는 악순환이다.

완투형 투수도 거의 없다. 투수진의 분업화가 대세이지만 완투형 투수들의 부재는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었다. 2014시즌 전체 프로야구 9이닝 혹은 8이닝 완투는 16번이었다. 롯데·넥센·KIA는 아예 없었다. 투수들이 달라져야 스피드업을 이룰 수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강정호는 힘 갖춘 유격수"

美 언론, 유격수 부문 랭킹 12위 선정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강정호(27·사진)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주전 유격수로 뛸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의 분석이 다왔다.

미국 스포츠매체 SB네이션은 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상위 유격수 30명'을 통해 강정호를 유격수 랭킹 12위로 선정했다. 또 "강정호가 무난히 연봉 협상을 끝내면 올해 피츠버그의 주전 유격수로 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의 공격력에 주목했다. SB네이션은 강정호를 '공격형 유격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무대에서 통한 공격력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인 만큼 스프링캠프를 통해 강정호의 능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SPN은 강정호가 포스팅을 신청하기 전 강정호에 대해 "힘을 갖춘 유격수"라고 분석한 바 있다. SB네이션은 ESPN의 분석을 빌려와 "우리는 강정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강정호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한) 목동구장보다 피츠버그의 홈 PNC파크는 타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강정호의 장점을 고려해 상당히 높은 편인 유격수 랭킹 12위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호는 포스팅 최고 응찰액 500만2015 달러를 제시해 독점 계약권을 얻은 피츠버그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연봉협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입성에 도전한다.

/정병호기자

EPL 강호들 FA컵 32강에

맨유·맨시티·아스널·첼시 나란히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들이 나란히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에 올랐다.

아스널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3라운드(64강)에서 헐시티에 2-0으로 승리했다.

이 대결은 지난 시즌 결승의 리매치로 관심이 쏠렸다. 당시 아스널은 연장 접전 끝에 헐시티를 3-2로 꺾고 9년 만에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홈에서 셰필드 웬즈데이(2부리그)를 2-1로 힘겹게 물리쳤다.

맨시티는 지난해 5월 컵대회에서 셰필드에 0-7의 뼈아픈 패배를 안겼다. 그러나 이번 대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셰필드가 전반 14분 아트데 누허우의 선제골로 앞서간 가운데 맨시티는 제임스 밀너가 후반 21분에 넣은 동점골과 후반 46분에 넣어낸 역전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지켜냈다.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영국 FA컵 첼시와 왓퍼드의 64강전 /AP뉴시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요빌 타운(3부리그)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15분 안데르 에레라의 골에 이어 후반 45분 교체요원 앙헬 디 마리아가 쐐기골을 넣었다.

첼시도 왓퍼드(2부리그)를 3-0으로 물리치고 32강에 합류했다.

/장병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5일)

대한항공	3	1	LIG손해보험

프로농구 전적 (5일)

팀					
KT	17	15	22	22	76
모비스	16	7	14	25	62
우리은행	18	12	16	27	73
KDB생명	20	10	17	12	59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7.5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